

아르헨, 석유 매장량 30% 증가

Repsol-YPF, 7억4100만배럴 유전 발견 ... 현 매장량 25억배럴

아르헨티나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됐다.

스페인-아르헨티나 합작기업인 Repsol-YPF는 최근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(Patagonia)의 네우켄(Neuquen)에서 7억4100만배럴의 석유와 1억8600만배럴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.

국제에너지기구(IEA)의 2011년 초 자료에 따르면, 아르헨티나의 석유 확인 매장량은 25억배럴이다.

브라질 일간지 폴라 데 상파울루는 “Repsol-YPF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르헨티나의 석유 매장량은 현재보다 30% 정도 증가하게 된다”고 보도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11/10>